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8월 29일(주일) 제1358호



사진은 영등포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개강!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동체 개강예배 하반기 아이스쿨 온라인 양육 과정도 개강

온누리공동체가 하반기 개강을 한다. 오는 9월 1일 남양주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9월 12일 부천온누리교회 화평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가급적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9월 21일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가 'King's Way'를 주제로 막 오른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0월 2~3일에는 추수감사주일 및 온누리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 사르밈 프로젝트가 이어진다. 10월 27~28일에는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11월 24~26일 부흥축제가 온라인으로 막 오를 예정이다. 11월 27일에는 임직식, 12월 4일에는 장로장립식이 거행된다. 12월 13

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된다. 12월 25~26일에는 성탄주일예배, 12월 31일에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하반기 아이스쿨 온라인 양육 과정도 개강한다.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양육 강의들이 개설된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 온라인 아이스쿨 양육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강의는 '풍당'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기도회

매일 오후 5시 온누리교회 유튜브에 기도편지

온누리교회가 지난 8월 20일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9월 28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현지 선교사들이 보낸 소식과 기도문이 한 편씩 게재된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참여 열기가 뜨겁다. 현재(8월 25일 기준) 누적 조회수가 2만 1천 회를 넘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아프가니스탄에 임하기를 우

리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M선교사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형제들이 탈레반에게 가족을 잃으면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B선교사는 "매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기도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들을 지켜 보호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1 사르밈 프로젝트 시작

온누리교회가 2021 사르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사르밈 프로젝트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쌀을 구매해서 이웃들을 돕는 캠페인이다. 9월 26일까지 각 순별로 사르밈 프로젝트 헌금을 하면, 그 헌금으로 지정된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쌀을 구매해서 공동체가 선정한 성도(여분이 생기면 교회 밖 이웃들에게 배송할 예정이다. 쌀 배송은 현지 사정에 따라 9월 말이나 10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사르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9월 26일까지 선정해서 사회선교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각 공동체 담당목사 및 대표 장로가 선정하면 된다. 외부 기관이나 개인 추천 대상은 사회선교본부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2021년 하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방법)	시간
9월 3일	OCC	중	오후 8시
9월 3일	가정사역	중	오후 8시
9월 3일	관악금천	중	오후 8시
9월 3일	노원	중	오후 8시
9월 3일	마포	유튜브	오후 8시
9월 3일	용산	중	오후 8시
9월 3일	한강	중	오후 8시
9월 4일	광명	중	오후 5시
9월 4일	동대문중앙	중	오후 5시 30분
9월 4일	일산	중	오후 8시
9월 5일	고양은평	유튜브, 중	오후 7시
9월 5일	동작	웹엑스	오후 7시
9월 7일	서빙고	중	오후 8시
9월 9일	영등포구로	중	오후 8시
9월 9일	특별한초대	중	오후 8시 30분
9월 10일	강서	웹엑스	오후 8시
9월 10일	강촌	중	오후 8시
9월 10일	김포	중	오후 8시
9월 10일	서대문	중	오후 8시
9월 10일	성동광진	중	오후 8시
9월 10일	성북	중	오후 8시
9월 10일	양천	웹엑스	오후 8시
9월 10일	여의도	중	오후 8시
9월 10일	이천	중	오후 8시
9월 10일	이수	중	오후 8시
9월 10일	중종로	중	오후 8시 30분
9월 10일	천양사역	중	오후 8시
9월 11일	북누리	중	오후 5시
9월 11일	신용산	중	오후 7시

양재			
날 짜	공동체	장소(방법)	시 간
9월 3일	과천의왕	중	오후 8시
9월 3일	도곡	중	오후 8시
9월 3일	송파B	중	오후 7시 30분
9월 3일	양재	중	오후 8시
9월 3일	Point5	중	오후 8시
9월 4일	강남B	중	오후 5시
9월 5일	경기A	중	오후 8시
9월 7일	서초A	중	오후 8시
9월 8일	강남A	중	오후 8시
9월 8일	강남E	중	오후 7시 50분
9월 8일	분당A	중	오후 8시
9월 8일	송파A	중	오후 8시
9월 9일	서초B	중	오후 8시
9월 10일	강남C	중	오후 8시
9월 10일	분당B	중	오후 8시
9월 10일	서초C	중	오후 8시
9월 11일	강남D	중	오후 8시
9월 11일	서초D	중	오후 8시
9월 11일	푸른누리	중	오후 7시
9월 11일	하모니	중	오후 8시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9월 10일	부천 믿음	중	오후 9시
9월 10일	부천 소망, 사랑	중	오후 8시
9월 12일	부천 화평	중	오후 5시
다락방별	부천 화락	-	-
9월 4일	수원 동누리-라파, 산마, 이레	중, 유튜브	오후 7시
9월 5일	수원 동누리-릿시, 살롬	중, 유튜브	오후 6시
9월 7일	수원 서누리	중, 유튜브	오후 8시
9월 9일	수원 남누리	중, 유튜브	오후 8시
9월 10일	수원 북누리	중, 유튜브	오후 8시
9월 3일	대전 연합	중, 유튜브	오후 7시 30분
9월 1일	남양주 연합	분당, 유튜브	오후 7시 30분
9월 10일	평택 연합	중	오후 8시
9월 3일	인천 연합	분당	오후 7시 30분
9월 10일	강동 연합	중, 유튜브	오후 8시
9월 3일	양지 동누리	중	오후 8시
9월 3일	양지 서누리	중	오후 8시

"한국교회 창조신앙을 바로 세워라!"

한국창조과학회(이경호 회장)가 지난 27일과 28일 창립 4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 창조신앙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27일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관련 기사 11면).

당회

일시: 9월 4일(토) 오전 6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사무
/명예/협동장로

제작회

일시: 9월 5일(주일) 2부 예배 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대상: 모든 제직
안간: 평남노회 청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요!”

NGO 더멋진세상에 저금통 후원 ‘박혜원 어린이’

NGO 더멋진세상 나눔홍보팀 앞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었더니 동전이 가득 찬 저금통이 들어있었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평택온누리교회 7살 박혜원 어린이가 지구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1년 넘게 모은 동전이라고 해요. 박혜원 어린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박혜원 어린이가 지구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에요. 유치원에서 나눠준 후원 저금통에 100원, 200원... 동전을 차곡차곡 모았답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고 있는 오빠(박천휘 학생)를 따라 후원하기로 했어요.

“유치원에서 저금통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줘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천휘 오빠가 어려운 나라 친구들을 돕고 있다고 해서 저도 그 친구들을 돕고 싶어졌어요.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동전을 모았어요!”

박혜원 어린이는 동전이 보이기만 하면 저금통에 넣었어요. 얼른 저금통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엄마아빠가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남은 다른 나라 동전도 모두 넣었습니다. 오빠랑 동생(박천규 어린이)도 함께 저금통을 채웠어요.

“천휘 오빠랑 천규랑 같이 매일매일 저금통에 동전을 넣었어요. 얼른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아빠가 주는 용돈, 집에 있는 동전, 과자 사 먹을 동전까지 모두 넣었어요.”

과자 사 먹을 동전까지 아끼면서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저금통이 드디어 꽉 채워졌어요. 박혜원 어린이는 엄마와 함께 저금통을 포장해서 우체국으로 갔답니다. 튼튼하고 예쁘게 포장한 저금통을 보낸 박혜원 어린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꽉 채워진 저금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계속 동전을 모을 거예요. 동전을 더 많이 모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제가 모은 동전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전해진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구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동전을 조금씩 모아보면 어떨까요?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저금통을 모아서 NGO 더멋진세상에 보내면 지구촌 어려운 친구들에게 전달됩니다.

진세상에 보내면 지구촌 어려운 친구들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세대 희망심기 캠페인

나눔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하나 있어요. NGO 더멋진세상 ‘다음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음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에 참가하면 필리핀 아펍타바마을 학생들에게 희망의 책가방과 학용품 선물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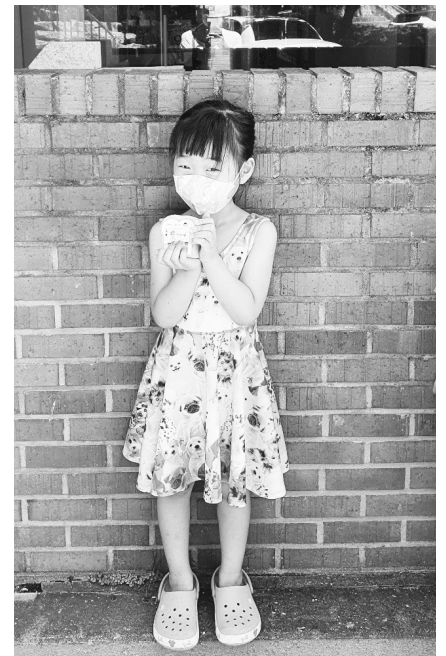
아펍타바마을은 필리핀 중부 파나이섬에 위치한 작은 산골마을이에요. 학교에 가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NGO 더멋진세상이 초등학교와 기숙사를 지어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갈 수 없게 됐어요. 집에서 각자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희망의 책가방 지원 캠페인은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후원을 신청하거나 은행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돼요. 희망의 책가방 세트는 3만 원이에요. 우리 모

두 함께 참여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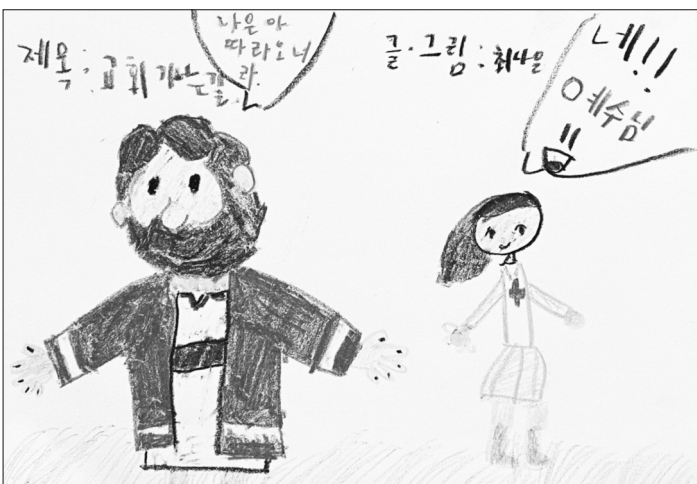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박혜원 어린이(7세, 평택온누리교회 예품)가 NGO 더멋진세상에 저금통을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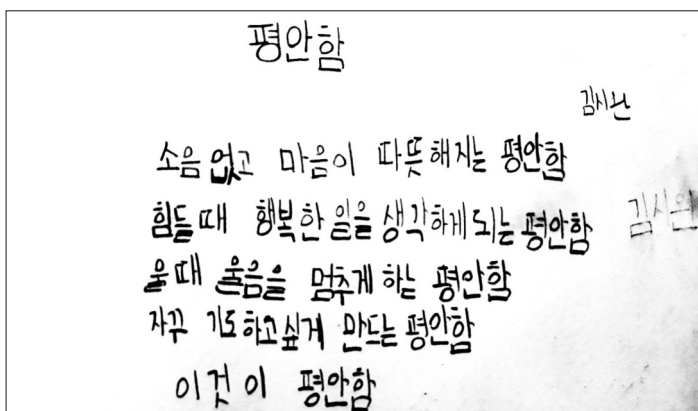
우리들 작품



〈교회 가는 길〉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예수님과 손잡고 교회에 가서 맘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 최나은 학생(양재 꿈땅 유년2부)



〈평안함〉

봄날 햇빛이 저를 따뜻하게 비추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것 같은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 느낌을 ‘평안함’이라는 시로 옮겨보았어요!

/ 김시완 학생(수원 초동부 3학년)

성경,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래 그림과 설명을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866년 구스타프 도레 작품.

출제범위 8월 23~26일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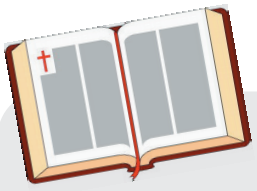
1.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 바알브트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로 건달을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어요(삿 9:4~5).
2.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드셨어요(삿 9:23).
3. 이 사람은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졌어요(삿 9:53).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이 부끄러워 한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어요(삿 9:54).

* 이름, 소속, 연락처와 정답을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5. 잠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 과학 기술과 문명이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물로도 사용하고, 예배당마다 걸려 있는 교회와 기독교의 상징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친숙해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친숙할 수 없는 끔찍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해서 사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만 집행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사형틀에서 집행된 사형수의 시신은 골짜기에 버리거나 들짐승의 먹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도 꺼렸습니다.

1세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신앙과 교회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가 처형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은 물고기였습니다. 로마 시대 지하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장소에 가보면 곳곳에 물고기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말하는 단어는 ‘익투스’인데 익투스의 앞의 이니셜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를 모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당시 신앙인들과 공동체의 상징이었습니다.

2-3세기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이마에 긋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터틀리안’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누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처럼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했다고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마음이 무너지고 휩쓸리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

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묵상할 때 다시 소망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어떤 도구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역설

십자가는 역설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역설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18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모세처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는 실망했고, 절망했고,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모습은 메시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외쳤습니다.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능력을 보였더라면,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은 이들을 벌주시는 능력을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수치와 조롱,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친히 인내하시고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걸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예언서,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올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같이 연약하고 고난받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구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읽었지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메시아는 능력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기적으로 세상을 통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또 다른 십자가의 역설은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22-24절).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받은 교육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받은 교육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주입된 문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한 마디로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실체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여깁니다. 죄가 인간을 얼마나 무섭게 망가뜨리는지를 망각합니다. 죄는 묻어두고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만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룰 수 없습니다. 법과 문화, 교육 제도로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을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포장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과 헌신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세상이 바라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어둠은 조금도 견딜 수 없고, 모든 불의를 반드시 벌해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보면 공의의 관점은 공의의 관점만을 바라보고, 사랑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싸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공의와 사랑을 융합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의든지 사랑이든지 한 면만 붙잡고 이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한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마음 한편에는 징계가, 또 다른 한편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부모 안에 일어나는 사랑과 공의의 갈등을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는 결코 진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진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리의 요구를 맞춰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진리,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4면에 계속>

사역, 놀면 뭐하니?

이웃사랑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의 결코 멈추지 않는 발걸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인 이상 모임 금지(집합금지), 이동 자제, 종교활동 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춘 것 같다. 하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사정이 열악한 이웃들을 향한 구제와 사랑이다. ‘사역, 놀면 뭐하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역팀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사회선교부 소속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교회 주변(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일대) 독거노인들의 소중한 벗이자 가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그들의 이웃사랑 열정을 가로막지 못한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관심, 나눔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한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웃사랑 실천 현장에서 만난 이웃사랑팀원들은 하나 같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이자, 벗이자, 보호자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웃사랑팀이 매월 마지막 주일, 교회 주변(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독거노인들을 찾아뵙고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주일 선물을 가득 들고 교회 주변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한다. 독거노인 50여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대부분 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일대 작고 오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고령 탓에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는데 부양가족마저 없어서 더욱 외롭고 아프다. 경제적 궁핍에도 시달리고 있다. 독거노인들에게 이웃사랑팀은 누구보다 반가운 사람들이다. 찾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선물과 꼭 필요한 생필품도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생활의 궁핍을 덜어주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 응어리까지 풀어준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고맙다.

이웃사랑팀의 섬김은 자연스레 전도로 이어진다. 이웃사랑팀의 헌신적인 섬김과 관심, 그 큰 사랑에 감동받은 독거노인들이 닫힌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고, 교회에 등록하는 어르신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사역의 열매가 보인다고 생각할 찰나 코로나19가 터졌다.

이웃사랑팀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독거노인들 대부분이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기도 끝

에 이웃사랑팀이 의외의 결정을 했다. 박순길 장로(이웃사랑팀 담당)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당장 사역을 중단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팀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한 달에 한 번 가던 방문을 두 번 가자’였습니다. 독거노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거의 못 합니다. 자주 가던 노인정이나 노인회관도 문을 닫아서 못 가고,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종일 좁고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TV를 보는 게 유일한 일상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겠다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역수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면 사역을 멈출 이유가 없었다. 멈춰서는 안 되는 사역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했다. 그래서 안전을 철저히 지켜 더 많이 찾아가겠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문 밖에서 잠시 인사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독거노인들에게는 그마저도 반갑고 꼭 필요한 도움이었다. 기다리는 이웃이 있는 한 이웃사랑팀은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보석 같은 만남 그리고 사람들

황옥화 권사(한강공동체, 73세)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이웃사랑팀을 섬기면서 만난 이정순 할머니(86세, 보광동 거주)를 마음껏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정순 할머니는 황옥화 권사를 비롯한 이웃사랑팀의 사랑과 관심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교회에도 등록했다. 황옥화 권사가 이정순 어르신 일대일제자양육자 및 순장이 되어서 섬기고 있다.

“이정순 할머니는 정말 순한 양 같습니다. 제가 하지는 대로 따라와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굴도 하얗고, 이야기하다 많이 우시는 마음이 참 여린 분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도 했으니까 믿음이 잘 자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황옥화 권사가 진한 아쉬움을 담백 뱉어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월 이웃사랑팀이 이정순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있지만 문밖에서 잠깐 보고 돌아와야 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오래된 휴대폰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공지나 안내를 잘 받지 못합니다. 또 연세가 많아서 눈도 나쁘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걱정이 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이정순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아 성도는 아들 이루다 군(초3)과 함께 이웃사랑팀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루다 군은 이웃사랑팀 최연소 봉사자다.

“해외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잘 모르고, 달란트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순장님께서 이웃사랑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인 것 같더라고요. 무엇인가를 해야 선교이고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웃사랑팀을 섬기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들도 이웃사랑팀에서 봉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은아 성도는 이웃사랑팀에서 섬기는 일이 좋은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상

황이 너무 아쉽다고 고백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아들도 정말 아쉬워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의 얼굴만 잠깐 보고 간단한 인사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고, 안아도 드리고,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면...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김솔라 집사(68세)가 이웃사랑팀 섬김을 하는 이유이다. 김 집사는 서울역 노숙자사역도 할 만큼 사회선교에 관심이 많다. 그녀가 매월 이웃사랑팀 섬김을 빠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르신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사정이 정말 딱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도 잘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달에 한번 찾아뵙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면 언젠가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

이웃사랑팀에게 올해부터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S브릿지공동체와 브릿지33+공동체 지체들이다. 그들의 각오도 대단하다.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같습니다. 더 많이 못 챙겨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뜻깊은 사역을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보살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가 이웃사랑팀과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이웃사랑팀의 이웃사랑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3436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음란물 중독, 반드시 회복해야 할 문제!

“우연히 남편이 수많은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실망감이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음란물을 통해서 성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인 제가 너무 초라해지기 까지 했습니다. 실망감과 자괴감이 드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남편을 발견한다면 아내는 매우 실망스럽고, 남편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특히 평소 신앙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남편이라면 더 큰 실망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내가 기대했던 남편에 대한 성적인 기준이나 순전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내는 자신이 느낀 실망감에 대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다. 음란물 시청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비난보다 자신의 심정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평소 나타냈던 소견과 상반되는 행동으로 보여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나 비난하는 어투로 말하기보다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공감적 경청으로 남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 남편이 습관적인 경향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 관계의 불만족으로 인한 것

인지 남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음란물을 시청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들이 가질 수 있는 주된 감정은 실망감이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은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아내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영상물이기는 하지만 음란물 속 이성과 가상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서 남편에 대한 실망감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실망감, 초라해지는 기분, 낮아지는 자존감, 배우자와의 단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아내의 기분을 남편은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음란물을 보는 행동은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배우자는 이런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많은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부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독적 음란물 시청의 영향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관계적인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음란물을 시청하는 남편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내에게 들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자신의 성적 거룩성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물 시청을 ‘건조한 성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결혼을 넘어서 성적 환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음란물 시청은 은밀히 행해지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탐닉 혹은 중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신이 음란물 시청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통제 수준을 떠나 중독 수준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음란물 시청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전문가의 처방과 치료,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음란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남편이라면 음란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선정성이 있으면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성인물과 음란물, 포르노를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공동체에 서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배우자와 음란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 중독 수준의 음란물 시청에 빠진 사람이라면 과거의 영향이라든지,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애작의 문제, 과거 성적인 경험, 알코올 등 중독 경험들을 탐색하면서 현재 자신을 이해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부부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앙인이자면 수위가 높은 음란물을 시청한 후에 죄책감, 후회,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당연히 자신의 신앙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중독적으로 포르노나 음란물을 본다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훨씬 심할 것이다. 문제는 다시는 음란물을 시청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충동이 찾아오고, 내적인 갈등

등을 하다가 시청하게 되고, 또다시 죄책감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자신이 중독적으로 포르노나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다면 그 패턴을 끊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살전 4:3).

음란물 시청은 자신의 영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족으로 인한 도피처로 음란물을 탐닉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음란물은 가짜 위안, 왜곡된 만족,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갖게 한다. 관계의 불만이라든지,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채우기 위해서 가짜 만족을 주는 영상물에 빠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음란물 중독은 신앙을 위해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문제다. 자신을 인식하고,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받고, 말씀과 믿음 가운데 회복해야 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크리스천과 건강



장봉순 교수 (양천공동체, 서울대의대 정형외과)

“내 병이 디스크나 아니냐?”

척추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한테 자주 받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기는 매우 곤욕스럽다. 환자가 디스크를 어떤 병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 중에 ‘디스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원래 언어적인 의미의 디스크는 둥글고 납작한 판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 자료 저장 매체인 CD(compact disc)를 들 수 있다. 척추에서 디스크라고 불리는 구조물은 원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이라고 한다. 척추 뼈를 연결해주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는 둥글고 납작하게 생긴 섬유연골로 만들어진 일종의 관절이다. 언제부터인가 디스크는 이러한 정상적인 구조물이 아닌 병명으로 사용되어 왔다. 아마도 디스크를 이루는 조직 일부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 상태인 디스크 탈출증을 줄여서 ‘디스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보다 더 환자나 의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디스크가 거의 ‘요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의미가 혼동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상당 부분 의료진의 책임이 크다. 짧은 시간에 쫓겨 진료하다 보면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여러 번 설명해줘도 환자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디스크’라고 하면 환자가 나름 이해하며 끄덕거리고 돌아가니까 요통을 호소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자들이 디스크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일단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로 진단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환자가 자기 질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디스크를 이해하려면 요통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요통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허리 부분의 각종 구조물(척추체, 디스크, 관절, 근육, 인대 등)의 이상으로 요통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복부 장기, 혈관, 심인성 등 척추 이외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고, 움직일 때 통증이 악화하며, 아픈 허리 부위를 누를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허리 자체에서 발생한 통증으로 볼 수 있다. 허리 자체가 문제가 되어 요통이 발생한 경우는 허리 인대 및 근육의 염좌(삔끗한 것)가 대부분이라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가 어느 정도 쉬기

만 해도 저절로 낫는다.

디스크의 이상은 외상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대개는 퇴행성(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시작된다. 디스크에서 수분이 빠져서 주저앉고, 불안정해지고, 일부 찢어지면서 이상이 생긴다. 이 경우 다리보다는 허리나 엉덩이의 통증 특히 허리를 숙일 때 악화한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빠르면 10대부터도 시작한다.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악화된 곳으로 디스크 조직이 밀려 나오면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고 염증이 생겨 신경통으로 다리가 뻘치면서 아파진다. 이 신경은 대개 좌골 신경으로 이어지므로 좌골 신경통이라고도 불리게 된다. 디스크(탈출증)와 좌골 신경통이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는 정확하지 않다. 좌골 신경통은 말 그대로 어떤 원인으로든 좌골 신경으로 연결되는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가장 많은 원인일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 중에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진단명이 모두 다르더라”면서 의료진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들이 환자 수준에 맞춰 설명하려 해도 각자 표현이 다른 데서 기인했을 것이다.

디스크 진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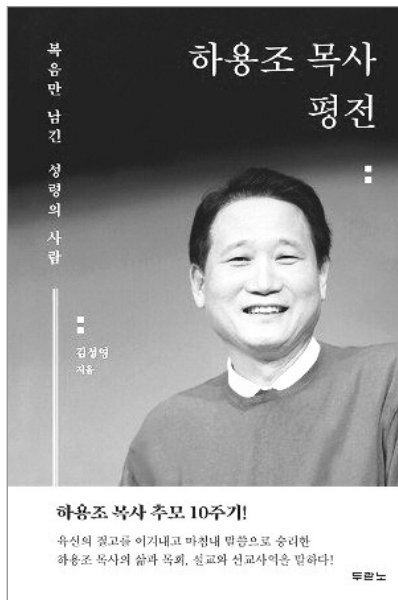
환자의 문진과 진찰을 통한 진단이 중요하지, 검사(방사선 사진, MRI 등)를 하는 것은 보조적이다. 요즘 세태를 보면 우선 검사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이 많다. 문제는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도 모두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검사에서 보이는 이상소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다. 너무 검사에 의존한 나머지 소견과 맞지 않는 검사상 이상 부위를 수술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일부는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 마비가 진행될 때다. 심하지 않은 마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치료 중에도 통증이 상당히 심한 경우는 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아무쪼록 요통 혹은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허리 건강을 위해 자세나 운동, 금연, 체중조절 등도 신경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믿음으로 거저 받는 감사의 선물이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몸은 모두 다르고, 자연적인 퇴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건전한 습관과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면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 읽어주는 목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용조 목사 평전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
김성영 저 | 두란노 | 35,000원

필자가 태어날 때 기도해주시고, 필자의 아들과 딸이 태어날 때도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불러주셨던 90세 되신 외할머니께서 큐티를 하고 이렇게 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큐티하며 부른 찬양이 즐겨 부르는 기호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자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는 이 기도를 듣고 부끄러웠다. 찬양을

이동 중에 BGM처럼 켜놓고 듣고 흘러 버릴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와 라디오처럼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는 십자가가 집의 장식 그 이상 이라도 아니고, 찬양은 자가용의 BGM이 되는 무감각해진 일상을 발견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 어떠한 시대와 상황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을 전해준 분과 그 꿈을 이어가는 교회의 이야기가 있다. 전 성결대 총장 김성영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하용조 목사 평전(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이다.

누구나 한 번쯤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꿈이 뭐예요?”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정말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 많이 노출되고 영향을 받는 환경과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꿈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변하는 환경에 따라 꿈도 바뀌게 된다. 어릴 때 꿈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의 대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꿈은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야 할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단 한 분,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다.

하용조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자신의 비전이자 온누리교회 비전으로 삼으셨다. 그 꿈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할 책 〈하용조 목사 평전〉에 잘 기록되어 있다.

책 〈하용조 목사 평전〉은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재훈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온누리교회의 시간 속에서 그 꿈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향성(목회 철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총망라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 책은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성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 어디에서나 정말 귀한 영적 유산이자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꼭 한번 정독해보기를 소망한다.

마치 책 속의 글들이 살아 숨쉬듯 필자와 필자의 가족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족의 비전으로 삼게 된 일화가 있다. 필자가 대학생 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던 날 간증을 하게 된 적이 있다. 그 순간 온 맘을 다해 열정적으로 고백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었다. 나중에 장로님 한 분이 본당에서 나의 간증을 듣고 계시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냥 끝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간증을 멈출 수도 있었고, 그 시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직접 올라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다. 그 덕분에 선교 기간 내내 전해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선교사님의 권면을 따라 1년을 더 연장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국에 돌아와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용조 목사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사셨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이 이어져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용조 목사 평전〉을 읽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윤준석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육체의 가시’ 안고 사역... 아픔 속에서 비전 잉태되고 헌신 통해 열매 맺다

“하나님, 변화산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 아름답게 변화 받게 하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선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용조목사가 2011년 7월 31일 서울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드린 마무리 기도의 원문이다. 그날 설교는 마가복음 9장 2-13절을 본문으로 ‘변화산에서 생긴 일’을 강해했다.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주문하고 귀가한 다음 날 새벽 하목사는 뇌출혈로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4시 1차 수술을 받는다. 오후 또다시 뇌압이 높아져 2차 수술을 받은 하목사는 8월 2일 오전 8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하목사 주치의이자 세브란스병원장을 역임한 이철 교수는 “주일예배를 끝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교적 사역을 마감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두란노가 하목사 소천 10주기를 앞두고 출간한 ‘하용조 목사 평전’에 소개된 마지막 모습이다.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이란 부제로 하목사의 65년 삶을 690쪽에 걸쳐 풀어낸다. 저자인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이 먼저 하목사와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예배 설교 선교 양육 사회선교 문화사역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집중 분석하고 그 이후에야 하목사의 개인 생애를 소개한다. 사실 발굴을 중시하는 기존 평전과는 결이 다르다. 하목사와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목사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역한 목회자였다. 저자는 “20대 청춘의 날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폐병으로 시작해 만성 간염에서 발전된 간암과 당뇨, 수없는 투석과 고혈압, 사선을 넘나드는 일곱 차례의 간암 수술을 이기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강단에서 복음을 토한 그의 투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라고 묻는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제시한 하목사는 그러나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고 고백했다.

하목사에 이어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이재훈목사는 “평전을 준비하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다”고 했다. 하목사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나 육체의 질병이었고, 그 질병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창의적 사역을 새롭게 출발한 것이라고 이목사는 전했다.

하목사는 대학 시절 폐병을 앓게 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고, 1976년 개척한 연예인교회를 80년 사임하고 이후 3년간 영국에서 건강 회복과 선교 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교회의 모습에 눈을 뜬다. 85년 12가정과 성경공부를 시작하며 그해 10월 온누리교회를 창립한 그는 건강 문제로 안식 기간을 보낼 때마다 성령 목회, 일본 선교, 더멋진세상 등의 새 사역을 준비했다. 이목사는 “아픔 속에서 비전이

잉태되고,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었다”고 표현했다.

책에는 육한흠 목사, 하목사와 함께 ‘한국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린 홍정길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목사와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의 글이 나란히 실렸다. 홍목사는 “65년 12월, 키가 큰 청년 하용조를 CCC에서 처음 만나 간사와 학생으로 매일 비전을 나눴다”고 했다. 그는 “하목사는 꿈으로 점철된 사람”이라며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두란노서원’을 세워 꾸준히 기독교 문서를 출판했고, ‘빛과 소금’을 만들어 파라처치(선교단체) 운동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이목사는 “하목사는 자신을 산 제물로 한국교회에 드린 성령의 사람”이라며 “제게는 실수까지도 아름다운 친구였으며, 저는 인간 하용조의 꿈에 빛진 자”라고 말했다. /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 이 기사는 2021년 7월 30일 <미션라이프>에 실린 내용을 전재하였습니다.

여름 Outreach 그 은혜 속으로!

◆ 양지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상주 봉천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 하늘대학부 온라인 아웃리치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블레싱'

소명의 첫걸음



양지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상주 봉천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아웃리치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누렸던 시간이었다. 우리 부부는 긴긴 여름에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는 시간을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에서 보냈다. 태양의 열기를 머리에 이고 날마다 작업복을 세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양지온누리교회가 올해 여름 아웃리치로 섬기게 된 곳은 상주시에 있는 봉천교회다. 불교권이 강한 지역적 특성이 있고, 노령화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작은 시골교회다. 지역과는 무관한 명칭으로 다소 생뚱맞기도 한 봉천교회 이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오래전 마을에 심각한 불치병을 앓는 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들 봉(奉)'과 '샘 천(泉)' 자를 써서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봉천교회는 지금의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전소되어 현재 예배당 형태로 변모되었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봉천교회 교육관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봉천교회에서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시내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고, 사실 교육기관을 찾을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을 위해 운영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1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어서 공부할 때마다 교회의자를 앞쪽으로 밀고 본당 뒤에 긴 테이블을 놓고 공부한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주로 내려갔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장님과 다른 팀원들에게 건강 문제가 생겨 남편이 아웃리치를 온전히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남편의 부담감을 조금

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나도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작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생겼다. 본교회 아웃리치 담당자와의 소통문제, 길어지는 공사 기간, 점점 떨어지는 체력 등 어려움이 몰려왔다. 게다가 집과 봉천교회 거리가 멀어서 숙소 문제가 큰 부담이었다. 교회 사택 외에는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없어서 김천에 있는 큰 언니네, 조카네를 전전하며 생활했다. 조카네 아파트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난민처럼 보였다. 차분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낙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불쑥불쑥 일어났다.

내 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봉사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함께 일할 인원들을 보내주셨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보면서 격려가 되었다. 평소 친하다고 여겼던 지체들에게 격려 문자메시지가 없어서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큐티 본문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달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사 7:21) 기도하고 후원 등 맡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더 힘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필요한 자리에 놓아 두셨음을 깨닫게 하셨다.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내 마음이 다시 안정되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일 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가 우리 부부에게 주신 소명의 첫걸음이라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이 여름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 장순덕 성도(양지온누리교회)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대학부 네팔 아웃리치팀이 네팔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있다.

“저이며시(‘예수 승리’라는 뜻!)”

이번 여름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열방의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지혜와 힘을 주시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늘대학부 네팔 아웃리치팀은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 아웃리치를 했다. 온라인 아웃리치는 세 번의 주제 모임과 마지막 주 선교사님 블레싱으로 4주 동안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에서 팀장을 맡은 나와 쿠시 디디 선교사님은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은 고민과 미주했다.

이번 아웃리치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매번 모임과 모임 사이에 일주일이라는 간격이 있는 상황이라 과연 아웃리치에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웃리치 기간 동안 뜨거운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몇 주 동안 고민과 기도 끝에 쿠시 디디 선교사님과 나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매주 모임마다 다른 주제를 활용해서 반복되는 내용과 형식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팀원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만 있는데서 오는 피로감을 덜고, 이번 아웃리치에 조금이라도 더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웰컴투 네팔(Welcome to Nepal)’, ‘프레이 포 네팔(Pray for Nepal)’, ‘블레싱 네팔(Blessing Nepal)’이라는 세 가지 소제목을 달고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3주 동안 쿠시 디디 선교사님이 준비한 네팔 현지의 영상을 보기도 하고, 선교사역과 현지 상황에 대해 선교사님께 묻고 듣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4주 동안 진행된 여러 사역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했던 블레싱 네팔이다. 그날은 쿠시 디디 선

교사님과 함께 네팔에서 사역하는 두 분의 목사님과 가정, 한 분의 사역자가 참여하셨다. 하늘대학부 네팔 아웃리치팀은 그분들께 네팔어로 찬양을 불러드리며 축복하고, 그분들이 나눠주신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 쿠시 디디 선교사님의 통역을 거쳐야 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분들의 진심과 영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특히 사역자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할 때 대면 아웃리치로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그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연합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네팔 온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았다. ‘비대면 아웃리치가 과연 가능할까, 직접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예배와 섬김, 연합과 기도가 얼마나 뜨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내 걱정들이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해소되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걱정이 앞섰던 지난 시간을 회개한다.

네팔 온라인 아웃리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고 돌아봤더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대면 아웃리치를 했을 때보다 애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과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신실한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고 감탄했다.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사람의 계획과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이원기 형제(하늘대학부)

여름 Outreach 그 은혜 속으로!

◆ 강동온누리교회 온라인 아웃리치 '선교사 축복 그리고 응원'

선교사님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



강동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아웃리치로 선교사 부모님을 위로하고 몽골 성도들과 함께 예배 했다.

멀고 먼 나라 몽골. 대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목회자였던 친구가 몽골사역을 오랫동안 했다. 그 덕분에 나는 몽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바이칼 호수와 초원, 게르, 맛있는 양고기 요리가 있는 나라, 드넓은 초원과 칭기즈칸의 나라. 몽골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이면서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든 나라이기도 했다.

올해 5월 어느 날, 교회 리더십 회의에서 몽골 온라인 아웃리치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리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했다. 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에만 의존해서 하는 아웃리치가 생소하기도 하고, 혹시 선교지에 불평을 주면 어쩌나 걱정도 했다.

온라인 아웃리치 첫 회의에서 이번 아웃리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중심이어야 한다고 참석자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 아웃리치 팀장은 인터넷 전문가이면서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이성원 집사님이 맡아서 큰 힘이 되었다. 줌(Zoom)으로 매주 모여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순서를 짜고, 몽골 초이발산지역을 위한 기도를 했다. 국제화상회의처럼 통역사를 준비하고, 영상편집과 발표순서가 아름답게 맞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모든 스태프들의 열정으로 틀을 잡아갔다.

선교사님 블레스 순서와 선교사님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다. 아이디어 회의 끝에 선교사님 부모님을 찾아뵙고 영상편지와 영상 인터뷰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선교사님 부모님은 포항에 살고 계셨다. 누군가 포항에 가야 하는데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원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총무님께 전화했다.

“딱히 가실 분이 없다면 제가 포항에 가겠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해외 아웃리치를 가지 못해

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나를 위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았다. 혼자 가기에는 먼 거리이고, 누군가 촬영과 녹음을 도와줘야 해서 올해 분순한 이태영 순장님이 흔쾌히 동행 해주셨다.

드디어 포항에 도착했다. 선교사님의 아버님과 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마치 우리가 선교사님(아들)이 되어 부모님을 찾아온 것처럼 극진히 환대해주셨다. 인터뷰 내내 두 분은 기도 외에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해준 게 없으면서 안타까워하셨다.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손자, 손녀와 아들 부부, 태중에 자라고 있는 손주까지 다섯 식구를 몽골로 보냈다.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따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셨다. 선교사님 부모님의 평화로운 얼굴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요셉의 집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걱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를 당부하시고, 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합창하며 선교지에서 힘내기를 응원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Go!”를 외치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웃리치 당일, 줌(Zoom)과 유튜브로 몽골 초이발산과 서울을 잇고, 몽골 성도님들과 강동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한 화면에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찍은 선교사님 부모님 영상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지켜본 몽골 성도님들, 강동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교의 DNA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도 헤치고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다. 온라인으로 더욱 가까워진 선교지를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Go!”

/ 박영철 집사(강동온누리교회)

◆ 영등포구로 온라인 아웃리치 '선교사 12명과 미션토크 페스티벌'

7개 다락방 결연 선교사들과 함께!



영등포구로공동체가 온라인 아웃리치로 7개 다락방 결연 선교사들을 축복하고 교제했다.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아웃리치를 한다는 공지를 들었다. 곧바로 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온라인 아웃리치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었다. 우리는 다락방별로 결연 선교사님과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공동체 전체가 온라인 아웃리치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하는 온라인 기도회와 아웃리치였다. 운영위원회, TF팀 회의, 다락방별 순장회의 등 참으로 많은 회의가 계속되었다. 순예배에서도 기도회와 아웃리치 관련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결연 선교사님들과 빈번하게 연락했고, 선교사님을 순장회이나 순예배에 초청한 다락방도 있었다.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결연 선교사님과 함께 다락방 온라인 기도회를 실시했다. 특히 선교사 블레스 시간이 매우 뜻깊었다. 줌(Zoom) 화면을 가득 메운 다락방 식구들이 풍선과 피켓 등을 들고 선교사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축복했다. 선교사님들이 매우 기뻐하셨다. 선교사님들은 현지 사진과 영상으로 선교 현장과 사역을 소개하면서 기도제목을 나눠주셨다. 마치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와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이 있었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이 우리와 한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아웃리치 당일, 7개 지역(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A국, B국, C국, 김포M센터) 결연 선교사님 12명과 영등포구로공동체 식구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했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의 하이라이트는 ‘미션토크 페스티벌’이었다. 필리핀에서 19년 동안 교회 5곳을 개척한 정광훈, 김경순 선교사님이 한번은 국유지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현지인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고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주셨다고 간증하셨다. 선교지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요한계시록 7장 9~10절 말씀이

성취되는 소망을 품고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는 B국의 선교사님은 주일학교를 경험한 고학년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주일학교 리더로 세운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셨다.

손 권사님은 올해 봄 예순이 넘는 나이에 A국으로 파송되었다. 오래전 JDS 훈련 중에 선교사의 비전을 가졌지만, 어머니 간병으로 10년이 지나서야 파송 받게 되었다고 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면서 망설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주춤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하라고 권면하셨다. 우리의 서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 6개 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해서 사역하고 있는 전영수, 장현미 선교사님은 두 아들 모두 선교사로 헌신해서 파송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하셨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두 아들이 ‘부모님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한다. 그 서원을 잊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안쓰럽다고 말씀하셨다.

7개 지역 선교사님들과 문답을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2시간 예정했던 온라인 아웃리치가 3시간이 넘어서 마쳤다. 그 정도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여러 지역 선교사님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사역과 삶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온라인 아웃리치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줌 화면에서 나가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 되고, 선교사님들과 하나 되게 하신 은혜도 감사하다.

/ 정연식 다락방장(영등포구로공동체)



코로나19, '선교훈련'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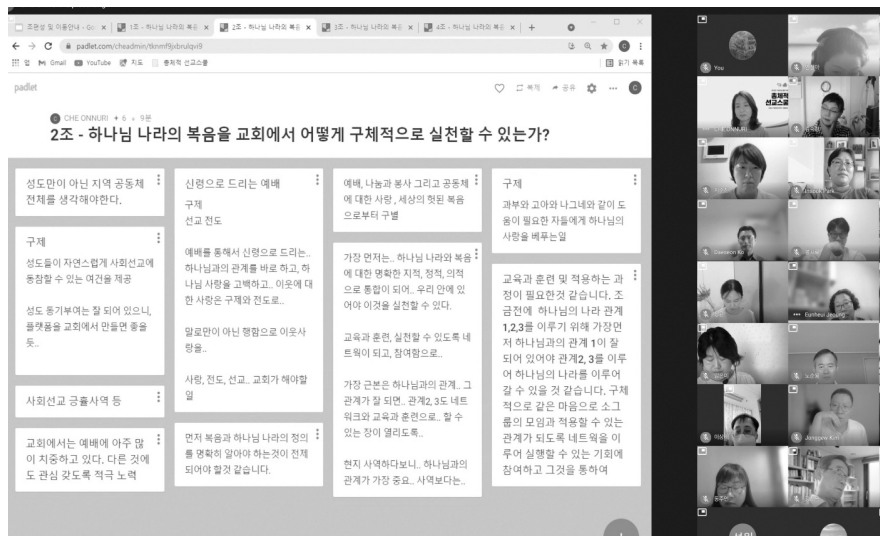
'CHE' - '하우미션, 총체적 선교 스쿨'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영성을 바로 세우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무더질까봐 몇몇 양육과정을 수강하면서 지낸 시간이 벌써 반년을 훌쩍 넘었다.

우연한 계기에 'CHE' - '하우미션, 총체적 선교 스쿨'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번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선교 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웬지 모르게 총체적 선교가 결정관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CHE' - '하우미션, 총체적 선교 스쿨'은 기대 이상이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5주 동안 10개 이상의 주제와 그에 따른 강의, 조별 소그룹 나눔,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소그룹 토의에 최적화된 툴(tool)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총체적 선교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인적 건강, 주인의식, 구호와 개발, 필요와 자원, 랩사스, 세계관, 총체적 온라인 아웃리치 체험 등 귀중한 경험과 배움을 선교현장에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조원들과 토의하는 좋은 기회였다.

독후감 교재인 <예수님이 시장이라면 지역 사회 선교전략>을 읽으면서 지역사회 변화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성경적 세계관(Biblical Worldview)을 체득할 수 있었다. 또한 선교사



강찬욱 집사(이촌공동체)는 'CHE' - '하우미션, 총체적 선교 스쿨'을 수강하며 총체적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현장에서 선교 콘텐츠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장단기 선교, 특히 아웃리치에 대해 많은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선교사가 어느 한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사회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특정 부분만을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주민들과 관계와 연대를 통해서 자급, 자치, 자전적

선교전략의 기본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원들과 '총체적 온라인 아웃리치'에 대해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5~6년 전부터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선교는 선교사를 통해서만 시작되는 것도, 지속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행 20:32).

바울의 간증처럼 선교는 말씀이 현지 리더십과 결합해서 계속된다. 이것이야말로 선교 전략의 기본이다. 선교지나 아웃리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다.

선교는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러지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명심해야겠다.

'CHE' - '하우미션, 총체적 선교 스쿨' 과정이 더욱 확산해서 장단기 선교사역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 강찬욱 집사(이촌공동체)



코로나19, '긴급구호'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코로나19 긴급구호

아프리카 르완다에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락다운 시행과 해제가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힘들어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2)는 말씀처럼 결국 이 땅에 큰 빛을 비추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들어진 응호망과마을과 가훈도마을을 극빈 가정 1천 가구에 생필품을 나눠줬다. 대부분 편부모나 조부모 가정이거나 극빈 가정이다. 품팔이 일을 하는 날에는 밥을 먹고, 일이 없는 날에는 굶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직접 집으로 찾아가 물품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한 가정이 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냄비에 감자와 콩을 삶아서 12명이 함께 나눠 먹는다고 했다. 이마저도 하루에 한 번, 많아야 두 번이 고작이니 얼마나 배가 고플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식량 부족과 빈곤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 마을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더멋진마을 만들기' 사역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온전히 자립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응호망과, 가훈도 마을 미혼모와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이 재봉틀 교실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

가훈도마을에 붕괴된 주택이 2채가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건축이 95%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락다운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잠시 멈춰졌다. 공사를 하면서 마을을 다니는데 화장실이 아예 없는 집이 꽤 많다는 걸 알았다. 땅에 대충 구멍을 파서 묻고, 마음 편히 씻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염려되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9가정에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미혼모가 늘고, 학교를 중도 포기한 청소년들도 많이 늘었다. 여성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재봉 일이기 때문에 '재봉틀 교실'

을 열기로 했다. 교회 일부를 재봉틀 교실로 바꾸고, 미혼모와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한 여성 20명을 선발해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판로를 개척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20명의 작은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싶는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무하지교회에 새롭게 청소년 예배가 생겼다. 평소에는 청소년 20여 명이 출석했는데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80여 명 정도가 모이고 있다. 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이 밖에도 가훈도마을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등록금과 교복을 지원하고, 미혼모가 늘어남에 따라 성교육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신나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락다운으로 모든 것이 멈춰 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자 감사제목을 고백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고백한다.

/ 김영일, 김소현 선교사(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지부)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아카데미 '관계기술훈련학교' 수료 간증

나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일 중심적인 사람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각자 타고난 성향이 다르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일 중심적인 사람이 더 좋다고 느끼기도 했다. 왜냐하면 일 중심적인 성향이 상황을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관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와 관계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마음 깊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와 예수님의 곁에 앉아있었던 마리아. 누구나 잘 아는 성경 일화처럼,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분주한데, 정작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은 나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창조하셨다. 내게 보내신 이웃과도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바이블아카데미 '관계기술훈련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관계성에 대해 내가 느낀 큰 틀은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훈련



성시철 형제(여호수아청년부)가 관계기술훈련학교 강의를 듣고 "자신의 관계성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인식, 둘째 훈련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훈련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도록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회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 된 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관계에 대한 나의 상태와 문제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관계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관계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찢림도 있었고 때로는 민망함에 웃음 지을 때도 있었다. 교재에 묘사된 관계 회로가 꺼졌을 때의 반응이 마치 요즘의 내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계속 성화(聖化)의 과정이 필요하다. 관계훈련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식한 이후 계속 훈련이 필요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다. 내가 좌우명처럼 삼고 살아가는 말이 있다.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습관에 따라 살아가다."

지독히도 변하기 힘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훈련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얻은 관계의 성숙함이 내 곁에 있다면,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의 만남이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다면 즐거운 여정이 될 것이다. 관계기술훈련학교 다음 단계 강의와 훈련이 기대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예비하신 많은 만남이 기대된다.

/ 성시철 형제(여호수아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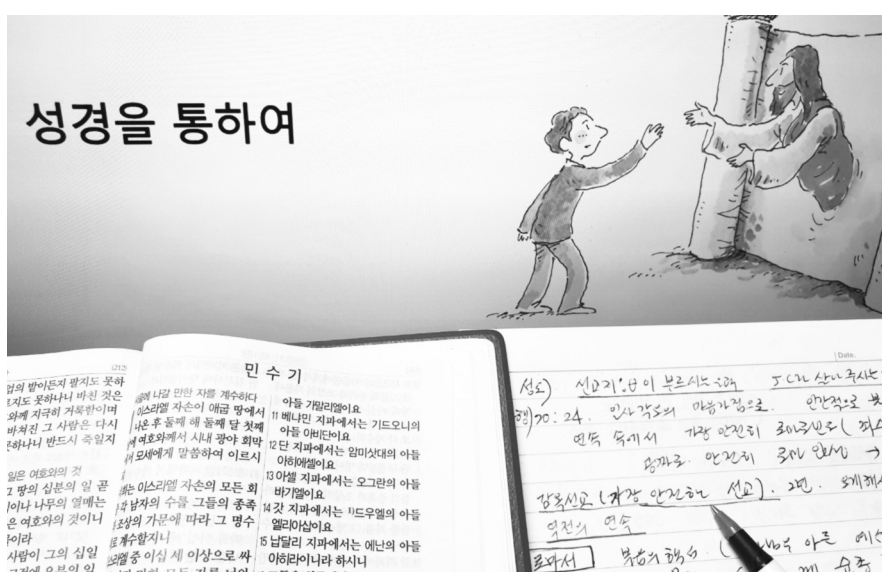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전통독 수료 간증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 예배가 제한되고 자유롭게 교회에 가지 못하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영적인 단절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초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시작되었다. 신앙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 4시 알람을 맞추고 열심히 동참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갈 무렵 영적 자매인 교회 동생의 권유로 비전통독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강의를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온라인(Zoom)으로 참석해야 했다. 낭패였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반차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강의를 들었다.

3월 초 예수제자학교(JDS) 수업이 시작되면서 성경통독과 새벽기도회, 비전통독, JDS 강의까지 일정이 빠빠했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매일 하루를 새벽에 시작하고, 말씀으로 허기를 채웠다. 말씀은 달고 좋았는데 회사 일까지 하느라 얼마 못가 건강에 무리가 왔다. 대상포진에 걸렸다. 의사는 대상포진이 왼쪽 뇌신경 쪽으로 와서 심하면

말씀에 빠져 감사와 은혜를 더하다



오미연 성도(이수공동체)는 비전통독을 통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실명이나 코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겁이 났다. 통증의학과부터 안과, 이비인후과로 그간 잘 다니지 않았던 병원 순례가 시작되었다. 마침 병원에 가는 날 비전통독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빠질 수 없다는 마음에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비전통독 담당 송석근 목사님과 김형숙 팀장님, 장로님들과 조장님, 조원들까지 중보기도를 해주셨다. 함께

기도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몽클했다. 함께하는 지체들 덕분에 병원을 다니면서도 답대함을 얻고, 몸도 회복되고 있다. 비전통독을 수강하면서 몸만 회복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도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비전통독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었다. 조원들과 함께 나누는 생활 속에는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성숙해 가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또한 많은 분량의 말씀을 간결하고 명확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비전통독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성경 지식은 밀도가 진한 치즈케이크를 먹는 듯한 풍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말씀의 치즈케이크 위에 달콤한 딸기를 올리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시간이 말씀을 더욱 풍성하고 달콤하게 만들었다. 말씀에 푹 빠져 감사와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었다. 세상의 지혜는 나를 포장하지만, 성경 말씀의 지혜는 나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었다. 결국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말씀을 읽을수록, 배울수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비전통독 과정을 통해서 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내 쓴 뿌리는 주께 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 오미연 성도(이수공동체)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2주년

창립기념식 ‘tomorrow by together’ 개최



지난 8월 24일 열린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케익을 자르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 8월 24일(화) 창립 22주년을 맞아 ‘tomorrow by together’를 주제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된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2주년 기념식 실

황은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누리복지재단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승진자 6명, 장기근속자(5년, 10년, 15년, 20년) 17명을 표창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목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귀하에 쓰임 받는 온누리복지재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축복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아빠처럼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 위로예배



온누리교회가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25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 위로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한정국 선교사(한국위기관리재단), 유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순직하신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주안에 온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하실 것”이라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故 최상운 선교사(오만의 자녀 최주는 성도(카타르)는 “카타르로 돌아가서 아빠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 위로예배에서 온누리교회는 지난 7일과 8일 봉헌한 비전현금 7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들의 생활비, 현지 선교사 가족들의 생활비, 유가족 상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순직 한인 선교사는 28명이다.

홈페이지에서 ‘예배당 예배 예약’ 필수

수용 인원 10%,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예배당 예배를 예약해야 한다. 토요일예배, 일요일예배,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주중예배에 본당 및 부속실마다 전체 수용 인원 10%,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일요일예배 1부(정원 300명), 일요일예배 2부(정원 240명), 일요일예배 4부(정원 240명), 일요일예배 5부(정원 80명)를 제외한 주일예배에 본당 1,

2층과 부속실을 합해서 270명씩 참석할 수 있다. 양재온누리교회 토요일예배 1부 328명, 2부 238명, 일요일예배 1~2부 268명, 3~4부 315명, 6부(열린새신자예배) 173명씩 사랑홀과 각 부속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부천 100명, 인천 100명, 수원 70명, 대전 60명, 대전 세종교육관 48명, 평택 30명, 남양주 토요일예배 25명, 일요일예배 1~2부 20명, 4부 30명, 강동 40명, 양지 97명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한국어선교학교

9월 4일 개강

한국어선교학교가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 등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수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다. 세례교인(타교회도 가능)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아이스쿨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문의: 010-3290-4506

/ 정현주 기자

CGNTV 발간양반, ‘베스트 다큐멘터리’ 수상

제7회 2021 서울웹페스트 영화제

CGNTV 유튜브 콘텐츠 ‘발간양반’이 제7회 ‘2021 서울웹페스트 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수상했다.

‘발간양반’은 서울역 노숙인들과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가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노숙인들을 ‘인생에 실패한 낙오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보는 이

주연 목사의 따뜻한 시선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GNTV 유튜브 채널 KNOCK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1 서울웹페스트 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웹 콘텐츠 영화제다. 27개국 180여 개 후보작이 참가해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 웹 콘텐츠 영화제로 손꼽히고 있다.

/ 김영선 기자

CGNTV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 결과

미혼 한부모가정 긴급생계지원금, 생필품 전달 예정

CGNTV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 미혼 한부모가정을 위한 생명 캠페인 ‘사랑으로 함께’에 765명이 참여해서 1억1천만 원을 모금했다. 후원금은 미혼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러브더월드’에 전액 전달할 예정이다.

러브더월드는 이 후원금으로

약 200여 미혼 한부모가정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전달하고, 식료품, 생필품, 의료키트 등이 들어있는 물품박스 300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CGNTV 임직원들이 물품박스 제작과 전달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한국창조과학회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1면에 이어>

한국창조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유신진화론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과 나아갈 방향’, ‘해외 창조과학 동향’, ‘한국교회 창조신앙 세우기’, ‘다음세대 창조신앙 세우기’, ‘창조와 연대’, ‘성경적 변증센터 포럼’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졌다. 김학유 총장(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김병훈 교수(합동신학대학원), 이신열 교수(고신대학교), 한유봉 교수(전북대학교), 유태준 교수(한동대학교) 등이 강의와 토론을 했다.

1981년 창립한 한국창조과학회는 성경적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창조신앙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9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화요일 온라인

창조신앙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요일반은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화요일반은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4658-0987(일요일반) 010-7292-2349(화요일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성경적 부모교실,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세상의 인본주의와 혼돈된 교육으로부터 자녀의 미래와 영혼을 지켜내도록 돕는 ‘성경적 부모교실’ 세미나가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

고 싶은 부모와 예비부모, 교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8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 김명옥 집사(주안장로교회)

갑작스러운 대장암 말기 진단으로 나의 시간은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치료 목적으로만 흐르고 있었다. 첫 항암치료를 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통과 메스꺼움, 온전하지 못한 정신세계가 나를 짓눌렀다. 죽음이 두렵기보다 덤덤하기만 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무너졌다. 마르지 않는 눈물로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아픔이 가슴에 사무쳐 감당하기 힘들었다. 딸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와 찬양하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딸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딸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우상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다.

남편의 종교는 불교다.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이 돌봐줘서 잘 사는 거라는 생각에 짝 차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딸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예배에 충실한 딸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죽으면 딸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딸의 믿음을 위해 누가 기도해준단 말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매일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다. 나의 딸이다. 내게 맡겨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

런데도 이유 모를 슬픔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항암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어머니학교를 소개받아 참석했다. 어머니학교에서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용기 내어 전하게 하셨다. 죽음만 생각했던 내가 남편과 딸에게 지금 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나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얼마나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남편과 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다. 남편과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머니학교에서 배웠다. 내게 남아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남은 시간 남편과 딸에게 최고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귀를 닫고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가족을 섬기려 한다.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가정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게 커다란 힘이 되어준 어머니학교에도 감사를 표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신 두란노어머니학교 115기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내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갈 것이다.

비대면 여름 아웃리치 간증



/ 김태청 형제(SNS청년부)

아웃리치를 처음 간 것은 재작년 여름이었다. 수없이 아웃리치를 갔다 온 동생에게 말로만 들었던 아웃리치였다. 처음 간 아웃리치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았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팀원 모두에게 강력한 회복과 은혜가 임했다.

올해 아웃리치 장소는 충남 서산 웅도에 위치한 웅도교회로 정해졌다. 그런데 팀원으로서의 경험밖에 없는 나에게 팀장 역할이 주어졌다.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팀장으로 섬기기로 결심했다. 경험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런데 초보 팀장인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아웃리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기만을 기다렸다. 팀원들과 교제와 나눔을 하면서 불확실한 순간을 믿음으로 버텼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비대면 아웃리치로 정해졌다. 그런데 웅

잊지 못할 은혜

도교회와 실시간 소통이 어려웠다. 객관적인 상황은 어려운 조건이 분명 맞았다. 그러나 나는 기도만 하면 됐다. 기도밖에 없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다.

여러 변수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팀원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준비했다.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마음과 노력이 통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잊지 못할 뜨거운 은혜의 시간으로 아웃리치가 마무리 되었다.

나의 기도 응답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아웃리치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셨다. 나 또한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2년 전 첫 아웃리치에서는 팀원으로서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했고, 두 번째 아웃리치에서는 팀장으로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했다.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강상우 순장(성동광진공동체)

불드시고, 돌이키시고, 인도하시는

어느 날 마가 2순 이병민 순장님께 전화가 왔다. 내게 순장학교 참가를 권하셨다. 나는 부순장이긴 하지만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서른셋인 내 나이가 순장이 되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고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내 망설임을 눈치채셨는지 이병민 순장님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셨다. 순장님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유라는 마음이 들어 순장학교에 등록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장학교 입교서류를 쓰면서 큐티스쿨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직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자녀 양육, 주택 구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시기에 두 가지 교육과정을 해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만 주신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 말씀을 붙잡고 큐티스쿨과 순장학교를 등록했다. 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독후감과 강의 요약 등의 과제와 매일 하는 큐티에 정신이 없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고민, 자격증 시험 접수까지 해놓은 내게 큐티스쿨과 순장학교의 과제까지 밀어닥치니 괜한 욕심을 부린 것 같아서

후회됐다.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모든 일을 해내고 있었다.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자격증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몇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주택 구입 문제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

순장학교 마지막 강의에서 박종길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여유 없는 내 삶에 불평하면서도 순장학교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게 만드셨다.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갈 힘을 충전시켜 주셨다. 나를 기도하게 하려고 순장학교로 불러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힘을 때마다 늘 교회로 부르셨다. 새벽기도와 성경통독 등의 권유가 있을 때는 늘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질 때였다. 순장학교 역시 하나님께서 내 힘들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늘 나를 불드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시편 묵상



/ 박명희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아침기도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시다”(시 5:3).

주님
새 아침을 맞이했으니,
새 노래로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세상 밖으로 나가오니
그전에 나의 욕을 채우듯
내 영도 든든히 채우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아침 뉴스의 앵커 목소리보다
부역의 도마 소리보다
하나님 귀에 먼저 도달하게 하소서

오늘도 반드시 맛당뜨리게 될
행악자, 어리석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 모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혹 저들이 내어놓는 타협안이 참신해 보여도
저들의 혀는 거짓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오니
저의 목전에는 주의 의로운 길만 곧게 보이게 하소서

오늘도 분명 주께 피하였음에도
손해를 보거나, 조롱을 당해도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여호와로 인해
내일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아침 식탁 위 샐러드 한 접시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의 손가락을 발견하며
찬양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장로칼럼

라오텐젠(老天津)



이병현 장로
(양지은누리교회)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교회 안팎으로 전도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는 음성을 연달아 들려 주셨다. 나는 중국 흑룡강성에 기독교 서적을 전달해주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중국 곳곳을 탐방했는데 고향 천진에 도착하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 천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천진행을 앞두고 이민 가방을 싸다가 고향에 있는 어릴 적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 경배와 찬양 테이프와 비디오를 한 보따리 싸다. 테이프와 비디오는 세관에 걸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됐지만 일단 비행기를 탔다. 중국에 도착하고 세관을 지나는 데 아니나 다를까 나를 한쪽으로 불러 짐을 검사했다. 문제의 이민 가방이 열렸고 테이프와 비디오가 가득한 것을 문제 삼으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세관에게 설명했다.

“내가 천진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들은 고향 친구들에게 줄 선물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던 세관이 “라오텐젠(老天津, 천진의 어르신)이 돌아왔다”며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주위에 있던 세관들도 손뼉을 치면서 내가 중국에 온 것을 기뻐했다. 테이프와 비디오는 이미 잊혔다. 세관들의 환영과 배움에 천진에 잘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봤더니 고향에

있던 신문기자들이 라오텐젠에 대한 기사를 써서 천진 전역에 소문이 났다.

고향에서 무엇을 할까 알아보다가 고향 친구들에게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어학원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장소를 찾는데 한 공원에 아주 적당한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을 임대하려고 알아봤는데 공원 건물이라 임대료가 어려울 거라는 대답을 들었다. 우연히 고향 친구가 공원 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원하는 만큼 쓰라는 환대를 받았다. 장소가 해결이 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허가였다. 현지 법으로는 외국인들은 학원을 열 수 없었다. 무작정 담당 부서의 고위 공산당원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는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학원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더이상 듣지도 않고 허락을 해줬다.

“당신이 라오텐젠이요? 라오텐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오. 내가 법을 바꿔서라도 도와주겠소”

학원은 금방 문전성시를 이뤘다. 학원이 잘 되니까 또 다른 사역 기회가 생겼다. 현지 한 인들로부터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렇게 화평국제학교가 세워졌다. 이곳에서 많은 학생이 훈련을 받고 교사와 봉사자들이 찾아와 복음을 전했다. 나는 또 다른 사역지를 찾아다녔다. 인근의 조선족촌과 탄광촌 등지를 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다.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십자가만 보이면 찾아가 교제하고 제자훈련을 제안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

‘라오텐젠’이라는 별호가 모든 일을 순탄하게 했다. 천진으로 나를 보내신 이도, 고향 친구들을 위해 경배와 찬양 테이프와 비디오를 준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시고 행하셨다.

권사칼럼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



전은자 권사
(인천은누리교회)

더운 어느 여름날 교회에 일이 있어 외손주와 함께 들렀다. 가장 먼저 본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자”고 했더니 외손주도 나를 따라 고사리 같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기도하더니 밖으로 나가자며 내 손을 잡아끌었다. 본당을 나와 복도를 신나게 달리다가 유년부 예배실이 궁금했는지 문을 열고 ‘신을 벗고 들어오세요’라는 안내문을 따라 신발을 벗어서 예쁘게 신발장에 넣고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하늘이 정말 예쁘네”라는 감상을 남기고는 밖으로 나왔다.

인천은누리교회가 구월동에서 송도로 이전하고 예배당이 완공되는 사이 외손주가 태어났다. 교회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손주를 보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를 떠올렸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차세대 예배가 예배당 예배로 드러지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보았다.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아이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인천은누리교회 본당 맞은편 벽에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았다. 나는 교회에서 12년 동안 파워웨이브 교사와 코치로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 일터에서는 강의와 상

담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응어리를 가지고 끄끅거리면서도 아프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 그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저 마주 앉아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로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로와 사랑의 마중물로 사용하시려는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다.

“주님, 제가 만나는 아이들을 사회의 기준과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모든 만남의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시간 가운데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주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만져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로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뛰놀며 예배드릴 인천은누리교회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한다.

“새로운 예배당에 주님의 어린 자녀들의 찬양과 기도가 넘쳐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청소년이 되어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의 지식과 부딪히는 혼란 속에서 말씀의 지혜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소서. 성인이 되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교회를 위해, 차세대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신앙에세이



고병석 목사
(강서공동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득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사람만큼 쉽게 바뀌는 존재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다. 덧붙여 “인간이란 단기간에는 잘 변화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살다보니 그 말씀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주변의 여러 사람을 봐도, 나를 돌아봐도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일까?’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목사였다. 목회자 자녀로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늘 교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20대 초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과 비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다. 교회에서야 믿음 있어 보이는 담임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비람과 적성을 고려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하루하루를 살았다.

한 사람을 가장 극명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십 대 중반 어느 해, 청년부 수련회에서 나는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변화됐다. 수련회 저녁집회 기도 시간이었다. 당시 나는 믿음이 없었기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 고역이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중보기도만 의례적으로 잠시 하고는 눈을 감고 가만히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날도 잠시 중보기도를 하

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나려나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너를 위해 살아가지 않겠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놀라움도 잠시 곧이어 두려움에 휩싸였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럴 수 없는지, 참 죄송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길게 드렸다. 그렇게 주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부름 가운데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내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고, 강제하지 않지만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시간 이후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

었다. 교제가 깊어질수록,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 결국, 그날의 부르심처럼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번에 180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시며 기다려주셨고, 부르셨던 그날도 또다시 기다리셨다.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마다 계속 역사하셨고, 그 은혜들이 켜켜이 쌓여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

사람은 자기 마음도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났습니다”(고후 5:17)는 말씀처럼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변화되면 변화된 존재로서 새로이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변화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

십자가는 하나님 창조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라부라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자유의 지를 가지고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고, 타락 이전보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변화시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스스로 사단과 동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사단과 한 무리가 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전체가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롬 6:6-8).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사단과 연락하고, 동행하고, 동류가 되고, 동역하고, 심지어 종이 된 옛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옛사람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부추기고, 격려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옛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임하셔서 사단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죄의 문제입니다. 서로 불신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이생을 강조합니다. 죽음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을 사랑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궁극적으로 이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전도자가 이미 “그 시대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개발을 해도 결국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

이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만이 가치 있는 것임을, 참으로 지혜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을 처음 접하고, 기독교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죽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위대한 위인들의 강조를 보면 모두 살아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살아 있을 때의 업적과 교훈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지식이 되어서 교회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가 나의 옛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끌어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다가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인간 창조, 그 놀라운 신비



손광희 집사
(대전온누리교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인간의 몸은 3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뤄져 있다. 세포 안에는 사람마다 고유한 DNA 조합이 있어서 각각 독특한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다. 사람의 유전자는 연구 초기에는 수백만 개로 추정되었는데, 2003년 일단락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및 후속 작업을 통해 밝혀진 최근 연구 결과는 대략 2만 개보다 적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는 쌀의 유전자 개수 5만 개보다 적고, 밀의 12만 개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이다. 아주 미소한 생물체인 선충과 비슷한 숫자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겨우 2만여 개라니. 기본적인 생명 기능뿐 아니라 복잡한 사고 활동을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려면 좀 더 유전자가 많고,

복잡하고, 기능도 정교해야 할 텐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산수이다. 미국 NIH(국립보건원) 및 민관합동의 인간 유전체 연구를 바라보던 현장 연구자로서도 그토록 적은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최근 연구는 버려진 유전자라고 생각했던 ‘정크 DNA’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 유전체와 아울러 기능유전체 연구가 한창이다. 인간 유전자 숫자가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 인간 유전체 연구에 이어 2007년과 2014년에 시작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인간의 조직과 체액, 피부, 장관 등에 존재하는 미생물군의 총합) 프로젝트는 인간의 다양한 조직에서 발견되는 대규모의 미생물 군락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장내 미생물을 비롯해 구강, 피부 등에서 인간과 공생 이상의 밀접한 관계가 추정되는 다양한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그 숫자를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분석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체 유전자의 10% 정도만이 인간의 세포 안에 있고, 나머지는 미생물에 의존

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대인의 관심인 비만의 원인도 상당수 장내 미생물의 종류 및 구성에 기인한다는 최근 결과도 많다. 장내 트러블 완화 및 최근 살 빠지는 유산균 음료에 이르기까지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산균’이라는 제한된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다. 더 나아가 자폐증, 파킨슨병 및 운동뉴런증(근육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부분이 고장 나 운동신경 세포와 근육이 서서히 악화되는 불치병)과 같은 일부 질병은 장내 미생물이 대뇌에까지 영향을 줘서 병증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2021년 들어서는 인간 마이크로바이옴과 암과의 연계성, 공중보건, 약효에 대한 개인차, 원시 미생물 및 야생동물 미생물과의 연계성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생물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애플사는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대만의 파운더리 전문사는 이를 대량생산한다. 나 이키는 스포츠 의류를 개발 및 디자인하고, 외국의 하청업체는 이를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는다. 인간 유전자 겨우 2만여 개로 유지되는 줄 알고 다소 의아했는데, 사실 인간 세포 스스로 가진 다양성보다 훨씬 막대한 유전자 다양성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긴밀한 일종의 하청작업을 통해 생명현상에 필요한 대사과정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단순한 집합체인 줄 알았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놀라운 기능과 건실한 미생물군이 유해한 미생물 억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연구 현장에서도 보게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기를 주셨듯이 보이지 않지만 막대한 미생물 다양성을 원시 생명체 그대로 주셔서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세포와 공존하고, 병을 이기고, 피부 밸런스를 지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에 복을 주심을 다시금 고백한다.

유전자와 미생물

콘 텐 츠 를 보 다
복 음 에 빠 지 다

포딩



포딩이 추천하는 신규 콘텐츠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과 부모가 된 이들,
여러분의 처음에 포딩이 함께합니다!



노(老)키즈존

강사 최영기 목사 / 가정교회 사역원 1대 원장

할아버지 목사와 초등학생의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

8월 30일부터 업로드(총 10편)



부모에게

강사 채경선 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모가 처음인 이들에게 채경선 교수가
보내는 편지

8월 31일부터 업로드(총 5편)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포딩' 다운로드

